

보도 시점 12.23.(화) 조간 < 12.22.(월) 14:00 >

##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편리하게 개선
-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AI 등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방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2일(월)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용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

구분	지원대상	공급규모(억원)		
		용자	이차보전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16,058	-
성장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 보유 기업	3,164	1,630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등 성장기 진입 기업	10,811	2,040
재도약기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등 재도전 기업	6,125	-
전주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2,500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매출채권 현금화,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필요기업	1,985	-
<b>합계</b>			<b>40,643</b>	<b>3,670</b>

##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및 혁신성장분야, K-뷰티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06조원의 60% 이상(2.44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AX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활용·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60억→100억원) 및 금리우대(0.1%p), 신속평가 등을 통해 AI 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지원대상 : 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② 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도입·활용기업

아울러, K-뷰티론의 공급규모 두배 확대(200→400억원) 및 연간 지원한도(2억원→3억원) 상향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품목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5년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25 지원 611억원→'26 목표 700억원)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운전자금)을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 ②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 >

공급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적극 개선하고, 컨설팅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등 효율성과 효과성도 끌어 올린다.

먼저,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어떤 자금이 기업에게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활용예시 >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26.1.5일 개시)』은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시 활용 가능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지원하여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 ③ 정책자금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체계 개선 >

중기부는 올해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시 정책자금 용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의 일환으로 전문가·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제3자 부당개입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않은 자가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예시 :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 등)

또한,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소액 지원기업(운전자금 누적지원액 5억원 이하)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6일(월, 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7~8일(수, 목)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524)
			주무관	오선혜	(044-204-7526)

# 참고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개요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	2026년 (본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금리±@)
<b>소계</b>	<b>45,280</b>	<b>52,280</b>	<b>40,643</b>			
<b>① 혁신창업 사업화자금</b>	<b>16,358</b>	<b>18,358</b>	<b>16,058</b>	-	-	-
-창업기반지원	13,358	15,358	13,058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일반) - 청년전용창업자금(청창) : 업력 3년 미만, 대표자 만39세 이하	60억 원 (운전5억 원 청창 1억)	시설 : △0.6%p 운전 : △0.3%p 청창 : 25%(고정)
-개발기술사업화	3,000	3,000	3,000	특허, 정부R&D 등 보유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30억 원 (운전5억 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b>② 신시장진출 지원자금</b>	<b>3,825</b>	<b>4,825</b>	<b>3,164</b>	-	-	-
-내수기업수출사업화	2,000	2,000	1,000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	10억 원	운전 : 기준금리
-수출기업글로벌화	1,825	2,825	2,164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	30억 원 (운전 10억)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이자보전 최대 3%
<b>③ 신성장기반자금</b>	<b>13,111</b>	<b>13,111</b>	<b>10,811</b>	-	-	-
-혁신성장지원	6,908	6,908	5,108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60억 원 (운전5억)	시설 : +0.2%p 운전 : +0.5%p 이자보전 최대 3%
-제조현장스마트화	4,666	4,666	4,166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	100억 원 (운전10억 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이자보전 최대 3%
-Net-Zero유망기업	937	937	937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 추진 기업 등	60억 원 (운전 5억 원)	시설 : +0.2%p 운전 : +0.5%p 이자보전 최대 3%
-스케일업금융	600	600	600	일반 대출과 달리 회사채를 발행 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당 120억 원 이내	신용등급별 금리
<b>④ 긴급경영안정 자금</b>	<b>2,500</b>	<b>5,500</b>	<b>2,500</b>	-	-	-
-일시애로 및 재해	2,500	5,500	2,500	고용/산업위기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및 재해피해 기업	10억 원 (3년간 15억 원)	운전 : +0.5%p 재해 1.9%(고정)
<b>⑤ 재도약지원자금</b>	<b>7,501</b>	<b>7,501</b>	<b>6,125</b>	-	-	-
-사업전환	3,500	3,500	3,125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미만)	100억 원 (운전5억 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재창업	2,000	2,000	1,000	재창업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60억 원 (운전5억 원)	시설 : △0.3%p 운전 : 기준금리
-구조개선전용	2,001	2,001	2,000	워크아웃 회생계획 정상이행기업, 청채금융기관 지정 부실징후기업 등	60억 원 (운전 3년간 10억 원)	운전 : 기준금리 차출구조 25%(고정)
<b>⑥ 밸류체인 안정화자금</b>	<b>1,985</b>	<b>1,985</b>	<b>1,985</b>	-	-	-
-매출채권 팩토링	590	590	590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	연간한도 (판매) 10억 원 (구매) 30억 원	기준금리(별동)± 가감금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395	1,395	1,395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중소기업 (수주 기업)에 생산자금 대출 → 납품 후 대기업(발주기업)이 중진공에 상환	연간한도 (수주) 15억 원 (발주) 200억 원	△0.3%p
<b>⑦ 통상리스크 대응긴급자금</b>	-	<b>1,000</b>	-	-	-	-
-통상리스크대응긴급	-	1,000	-	美관세 품목업종 영위기업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30억 원 (운전 10억 원)	시설 : △0.6%p 운전 : △0.3%p

\* 이차보전 미포함 (이차보전 공급규모 '25년 6,027억 원 → '26년 3,670억 원, △2,357억 원)

\*\* '25.4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4%